

필리버스터·탄핵 청문회... 여야 출구 없는 대치

‘방송 4법’ 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결→법안 처리 반복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 산재... 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되돌이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전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집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

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버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도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 정점식, 교체나 연임이나

한동훈, 국힘 정책위의장 거취 고심... 유임엔 과반이 친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키워 드는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정책적 좌표 설정을 위한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한 대표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공언했다. 이같은 행보를 통해 “정권 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한 대표의 기조는 2026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예정된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 대표 측은 28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차례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이처럼 당의 방향타를 고쳐 잡는 과정에서 고심하는 부분은 기존 ‘황우여 비대위’의 주요 당직, 특히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와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백지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대표 주변에서 정 의장의 ‘용퇴’를 바라는 배

경에는 ‘한동훈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한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고위는 친한계가 3명(한 대표와 장동혁·진중호 최고위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도 4명이다. 최고위를 구성하는 9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한 대표 측은 ‘친윤(친윤석열) 직계’로 여겨지는 정 의장이 당원직 최고위원으로 남을 경우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친윤 지도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려는 데 대한 불만 기류가 일각에서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정 의장의 거취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 개선 문제와 결부 짓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가 정 의장 교체를 강행할 경우 당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종호 녹취록’ 등장 경찰들 분리 조치해야”

양부남 의원, 경찰청 자료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한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이 3년 6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인사 때마다 본인의 부속실장과 같은 발령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6월까지 경무관들 가운데 전임 부속실장과 함께 발령지로 이동한 사례는 총 11건에 불과하다”며 “그 중 조병노 경무관과 최 경위가 같이 이동한 건수가 2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인 최 모 경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의 이종호씨와 같은 ‘맛쟁해



병’ 단톡방 멤버로 조 경무관의 승진을 정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 경위는 현재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두 번 이상 같은 근무지로 부속실장과 함께 발령받은 경무관의 사례는 조 경무관 이외엔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안이다”면서 “조 경무관과 최 경위는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 인사 정탁 의혹이 불거진 만큼 두 사람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전국에 후보 낼 것”

다음달 지역위원장 임명

조국혁신당은 28일 “2026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초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지역위원장들을 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의 연임을 확

정해 ‘2기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다음 단계로는 지역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황 사무총장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면 거기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이 국회 안에서는 협력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바닥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이 성공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

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혁신당 합류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등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혁신당의 창당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센터를 당이나 의원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